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89-131
<https://doi.org/10.29212/mh.2022..124.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몽골 전쟁기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과 승전의 반향

홍민호 | 자유기고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 목 차
1. 머리말
 2. 撒禮塔軍과의 전쟁 추이와 廣州牧 일대의 조건
 3. 몽골의 전술과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
 4. 고려의 방비 보완 기조와 처인성 승전의 반향
 5. 결론

초 록 전쟁은 수행하는 주체가 있고, 그 행위는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몽골이라는 주체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포로 등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그렇기에 여러 지역에서 ‘大城’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小郡’을 공격하여, 軍民을 포로로 취하는 행적을 보였다.

몽골이 향후 한반도 남부로 진격해 나갈에 있어, 처인부곡은 인적 자원을 비교적 쉽게 편취할 수 있는 ‘小郡’이었다. 이미 광주성에서 인적·시간적 손해를 떠안은 撒禮塔軍은 여러 ‘小郡’을 장악해 인적 자원을 재수급해야 했다. 하지만 처인성에서 撒禮塔은 전사하였고, 전쟁의 한 분기가 종결되었다.

처인성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거점이 아니었다. 특기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저 몽골이 殘滅하고 지나간 여러 지역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승전으로 인해 고려 정부에게는 처인성 전투 중심의 전황 이해가 강제되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방어체계에서 유리된 이들이 군집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 정부는 항전 역량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인적 자원 보호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방어 방침을 보완하고 있다. 처인성 전투가 가져온 반향이자, 해당 전투의 또 다른 의의이다.

주제어 : 고려·몽골 전쟁, 처인성, 小郡, 大城, 포로, 入保

(원고투고일 : 2022. 7. 7,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머리말

크게 6차례에 걸쳐 전개된 고려·몽골 전쟁은¹⁾ 고려가 겪었던 직접적인 戰役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 40여 년에 이르는 기간도 그렇거니와, 전장도 고려 全域에 걸쳐 있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새로운 질서 하에 편입되었으며, 폭넓은 변화를 맞이했다. 이렇듯 고려·몽골 전쟁은 고려 역사의 큰 분수령 중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긴 시간 수행된 해당 전쟁 간에는 수많은 官·民의 노고가 투입되었고, 여러 주목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사건을 꼽자면, 처인성 전투는 후보에서 빠질 수 없다. 일반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던 부곡지역에서 치러진 이 전투는 적의 元帥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결국 몽골군이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처인성 전투는 연구자들에게 오랜 기간 조망되어 온 사건 중 하나이다. 대개는 부곡민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전투라는 점이 다뤄졌다.²⁾ 고려 정부에게 전쟁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벌여주었다는 점이나³⁾, 교통로 보존·해도입보책 운영 등에 기여했다는

1) 전쟁의 시기 구분은 주로 통용되고 있는 몽골 元帥에 따른 구분법(1차 撒禮塔軍과의 전쟁(1231~1232), 2차 撒禮塔軍과의 전쟁(1232), 3차 唐古軍과의 전쟁(1235~1239), 4차 阿母侃軍과의 전쟁(1247~1248), 5차 也窟軍과의 전쟁(1253~1254), 6차 車羅大軍과의 전쟁(1254~1259))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처인성 전투가 전개된 시점은 2차 전쟁기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고려·몽골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尹龍赫,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2) 尹龍赫,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 『韓國史研究』 29,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 尹龍赫,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2011 ; 李在範, 「대몽항전의 성격에 대하여 : 계층별 항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0, 2004.

것⁴⁾ 등 전쟁사적인 의의도 지적되었다. 작게는 몽골의 원수를 사살한 인물이 김윤후 본인인지⁵⁾ 혹은 아닌지부터⁶⁾, 전투는 공성전의 방식이었는지⁷⁾ 혹은 野戰이었는지⁸⁾도 추론된 바 있다.

몽골군의 처인성 진격 목적도 연구 대상이었다. 충청도·경상도 진군에 앞서 요해처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견해⁹⁾, 군창이 있었다는 기록을 신뢰하면서 물자를 확보하려는 행보였다는 해석¹⁰⁾, 江都를 고립시키고 해도입보의 전개를 방해하고자 했다는 의견¹¹⁾ 등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처인성 전투 개별 사건은 물론, 고려·몽골 전쟁의 이해에 기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상의 성과들은 전황의 전개와 고려의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쟁은 상호간에 치러지며 수행하는 주체가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특성이 사건의 전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처인성을 공략한 주체가 ‘몽골’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소 간과된 인상이 있다.

주지하듯 몽골은 13세기 초 칭기즈 칸을 중심으로 규합되었고,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몽골이 펼쳤던 전략·전술은 각지의 관

3) 尹龍赫, 앞의 글,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4)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2018.

5) 周采赫,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6) 尹龍赫, 위의 글,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 尹龍赫, 위의 글, 1998 ; 앞의 책, 2011 ; 강재광, 2018, 위의 글.

7) 李仁寧, 「蒙古侵入과 處仁城 勝捷小考」,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88 ; 이인영, 「몽고침입과 처인성 승첩에 관하여」, 『읍치와 성곽』, 민속원, 2010 ; 강재광, 위의 글, 2018 ;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金允侯將軍의 3次例 勝戰의 意義」, 『白山學報』 114, 2019.

8)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9) 尹龍赫, 위의 글,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10) 李仁寧, 앞의 책, 1988 ; 이인영, 앞의 책, 2010.

11) 강재광, 위의 글, 2018.

심사였으며, 다양한 시각을 통해 관측되었다. 몽골군이 처인성으로 길을 잡은 것은 물론 현장의 조건들이 고려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익숙한 전투 수행 방식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¹²⁾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전황 분석이 요구된다. 또, 결국 고려 정부는 처인성 전투 이후부터 대응책을 보완했던 것이 확인된다. 방책의 효과와 처인성으로 향했던 요인을 상호 대조해본다면, 처인성 전투가 향후 고려의 전쟁 수행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인성 전투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처인성 전투 개전 이전까지 상황을 개괄하고, 처인부곡 주변 지역의 특성을 살핀다. 그리고 몽골이 군 운용시 보였던 특성을 분석하여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고려가 시행한 보완책의 기초를 통해 몽골의 진격 요인과 처인성 전투가 고려의 對몽골 방어책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해본다. 본고가 해당 전투의 성격 및 고려 정부의 전쟁 수행 방식의 일면을 조망할 수 있길 기대한다.

12) 몽골의 전략·전술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로는 다음이 참조된다.

孫克寬, 『蒙古初期之軍略與金之崩潰』,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55.;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78; 羅旺紮布 外, 『蒙古族古代戰爭史』, 北京: 民族出版社, 1992; 박원길, 「몽골비사 195절의 표현 방식을 통해본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 『몽골학』 14, 2003;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 민속원, 2006; Timothy May, "The Mongol Art of War: Chinggis Khan and the Mongol military system", *Barnsley: Pen & Sword Military*, 2007; 신우철 譯, 『몽골 병법』, 대성닷컴, 2009; 윤은숙, 「몽골제국 시대 몽골군의 유목 전법」, 『몽골학』 28, 2010.

2. 撒禮塔軍과의 전쟁 추이와 廣州牧 일대의 조건

1225년(고종 12), 이른바 著古與 피살사건이 일어난다.¹³⁾ 그리고 몽골은 이를 빌미로 1231년에 고려를 침공하면서, 양자는 긴 전란을 치르게 된다. 撒禮塔¹⁴⁾을 원수로 한 몽골군을 맞이하여 고려는 북계 지역에 한정, 방어 역량을 주요 ‘大城’에 집중하면서도 나머지 군현은 해도로 입보하는 광역단위의 淸野를 전개하였다.¹⁵⁾ 龜州·慈州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고려였지만, 결국 강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1232년 1월, 결국 몽골군은 철수하였다.¹⁶⁾ 하지만 북계 지역을 장악했던¹⁷⁾ 몽골은 達魯花赤을 두고¹⁸⁾ 探馬赤軍과 함께 洪福源 및

13) 著古與 피살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먼저 고려로 파악하는 논자가 있다(箭內巨, 『蒙古の高麗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4, 東京: 丸善株式會社, 1918, 490~492쪽; 최윤정, 「고려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128~131쪽). 그리고 金이 배후일 가능성을 제시하거나(尹龍赫, 앞의 책, 1991, 35~40쪽), 東眞이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한 논자(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371~376쪽)도 있다.

14) 撒禮塔은 1218~9년 江東城 전투 당시 몽골군 副元帥였던 札剌과 동일인물로, 다양한 글자로 음사되어 나타난다(周采赫, 「札剌와 撒禮塔」, 『史叢』 21·22합, 1977). 본고에서는 ‘撒禮塔’으로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다만 직접 인용한 사료에 다른 표기가 나오는 경우, 그 것을 노출하고 *를 표시하여 동일인물임을 나타냈다.

15)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研究』 193, 2021, 130~141쪽.

16)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1월 壬辰.

17) 『元史』 권2, 本紀2 太宗 3년 8월. 이 때 몽골군이 장악했다고 하는 ‘四十餘城’에 대해서는 자구를 역면 그대로 신뢰하는 견해(池內宏,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0, 東京: 丸善株式會社, 1924, 134~137쪽; 姜在光, 『蒙古의 제1차 침공과 被陷 北界 14大城의 抗戰』, 『韓國史研究』 146, 2009a)와 실제 14개가 아니라 북계 諸城을 총칭한 표현이라는 견해(周采赫, 「初期麗元戰爭과 北界 四十餘城 問題」, 『史學會誌』 16, 1970; 尹龍赫, 앞의 책, 1991, 52쪽)로 나뉘어 있다.

投蒙高麗軍民을 주둔시키며¹⁹⁾ 고려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고려의 집정 최이는 이전부터 江華를 정찰하고 있었다.²⁰⁾ 그리고 고려는 몽골과의 강화 이후 북계 지역에 파견되었던 몽골의 達魯花赤을 제거하며²¹⁾ 항전 의지를 보이는 한편, 강화로 전격 천도하였다.²²⁾ 이에 수반하여 일부 국경 지대에만 적용되고 있던 입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²³⁾ 앞서서의 강화는 재향전을 염두에 두고 한발 물러난 것이었던 셈이다.

撒禮塔은 그해 8월 고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받고²⁴⁾ 재침해왔다. 그는 고려 정부에 서신을 보내 반응을 살피는 한편,²⁵⁾ 江都를 공략하고자 현지에서 民戶를 모아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²⁶⁾ 하지만 몽골에 포획된 鄉戶 邊呂가 고문에도 불구하고 물길의 험난함을 피력하자, 결국 이를 신뢰하고 고려의 남부로 기수를 돌렸다.

이 때 몽골군의 별동대는 이미 남진하여 경상도에 이르고 있었다.²⁷⁾ 그리고 撒禮塔의 본대는 廣州牧 일대로 향했다. 여기서 해당 지역의 교통요건을 살펴보려고 한다.²⁸⁾ 군대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

18) 『元高麗紀事』序, 太宗 3년.

19) 周采赫, 「高麗內地의 達魯花赤 置廢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 1, 1974 ; 『몽·려 전쟁기의 살리타이와 흥복원』, 혜안, 2009, 31쪽.

20)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12월.

21)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7월 ; 『元高麗紀事』序, 太宗 3년.

이 시기 達魯花赤의 설치·제거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周采赫, 앞의 글, 1974 ; 앞의 책, 2009 ; 姜在光, 앞의 글, 2009a.

22) 尹龍燾, 앞의 책, 1991, 153쪽.

23)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9년 6월.

24) 『元史』 권154, 列傳41 洪福源 ; 『元高麗紀事』太宗 4년 8월.

25)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9월.

2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泰川縣 人物 邊呂.

27) 그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다만 부인사 대장경 소실을 바탕으로 별동대의 흔적을 확인한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윤용혁, 「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28) 이후 글의 전개에서 ‘영역’·‘지역’·‘일대’는 모두 먼 단위의 일정 구역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 군현명과 함께 활용했을 경우는 계수관 영역 등 일종의 광역 행정 이 이루어지는 범주가 아니라, 주현으로 기능하는 범위를 가리킨다. 영역 내 특정

한 요소 중 하나는 길의 존재이다. 고려의 역로는 대읍 간을 직로로 연결하여 뻗어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²⁹⁾ 그리고 실제 대규모 군의 기동도 이러한 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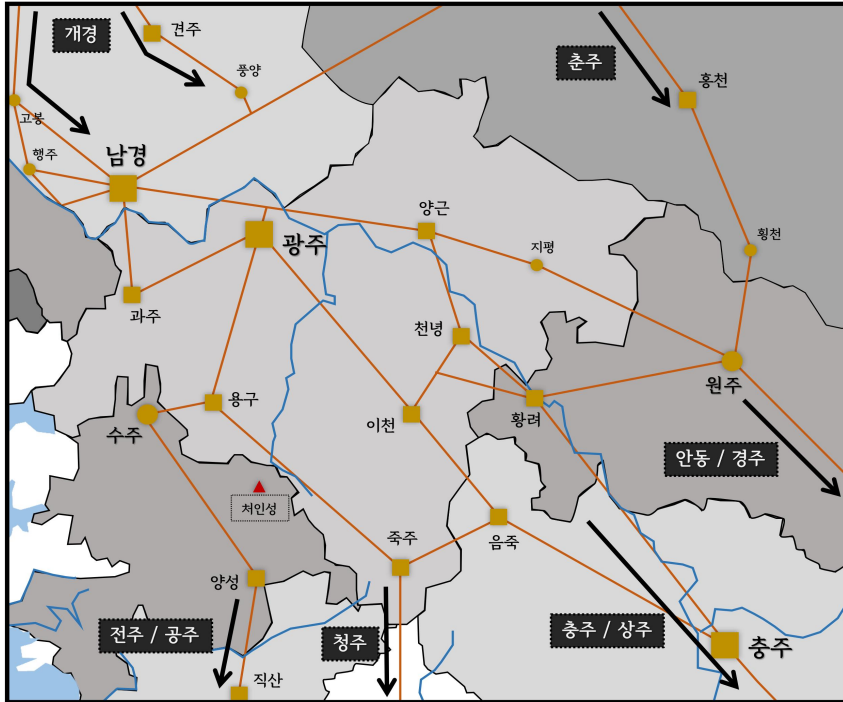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려의 도로는 개경을 중심으로 각 방면을 직로로 연결하는 'X자형'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중부 일대의 역로망을 지도에 옮기면 <그림 1>과 같다. 개경 방향에서 내려오는 큰 대로들은 결국 모두 광주목 영역 내에 진입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광주목 영역을 지나면 공주-전주, 청주, 충주-상주, 안동-경주 등 한반도 남부 각 지역의 주요 군현으로 향할 수 있었다. 즉, 廣州 일대는 X자의 중심부이자 길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남하할 때 굳이 춘주 쪽의 우회로를 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을 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거점을 가리키는 경우, '○○城' 등으로 구분하였다.

29) 鄭杓根,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8, 49쪽; 한정훈, 「고려 전기 22驛道와 漕倉制의 운영」,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114쪽.

30) 鄭杓根, 앞의 글, 2008, 74-80쪽.

<그림 1> 한반도 중부 일대의 역로망



* 역로망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高麗史』 권82, 志36 兵2 站驛.

鄭杓根, 2008, 『高麗·朝鮮初の驛路網과驛制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훗날의 龍仁縣은 광주목 내 龍駒縣과 水州 내 처인부곡이 병합되면서 만들어졌다.³¹⁾ 이처럼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고을이 지리적 인접성을 비롯해 여러 관련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처인성이 위치한 처인부곡은 고려 시대에는 비록 수주 소관이었지만, 위와 같은 광주목 일대의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어떠한 군대가

3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龍仁縣.

고려의 남부 지방으로 진격하고자 한다면 광주목의 영역을 지날 가능성이 높고, 처인부곡 역시 그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고려는 물론이고, 몽골 역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을 함께 보도록 한다.

- A1) 廣州가 곧 中道の 巨鎮이므로 조정에서 논의하고 가려 뽑아 공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 ... (중략) ... 주는 남쪽 길의 중요한 곳에 해당하니, 이 성이 함락되면 남은 일은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군이 아니었다면 위험했도다.³²⁾
- A2) 몽병 3,000명이 와서 高州·和州 경계에 주둔하였고, 척후기 300여 명은 廣州에 와서 민가를 불태웠다.³³⁾
- A3) 몽병이 서북쪽 변방에 들어왔고, 척후기가 廣州에 이르렀다.³⁴⁾

A1은 「李世華墓誌銘」의 일부이다. 해당 시점은 1232년(고종 19)으로, 처인성 전투가 있었던 2차 전쟁기에 해당한다. 이 때 이세화는 廣州副使에 임명되었는데,³⁵⁾ 해당 사료에 따르면 이세화를 특별히 택해 보낸 이유는 광주가 中道巨鎮인 탓이었다. 이어서 그의 공적에 대한 평이 나타나는데, 광주가 가지는 지리적 이점 탓에 잘못 되었을 경우 연쇄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 하였다. 당시 고려인들

32) 「李世華墓誌銘」. ‘以廣州, 迺中道巨鎮, 朝論揀汰, 遣公出刺 ... (중략) ... 州當南路要會, 此城陷, 則餘可知已, 微君幾殆矣’. 이하의 묘지명 자료는 모두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에서 인용하였다.

33)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0년 8월. ‘蒙兵三千來屯高和二州之境, 候騎三百餘至廣州, 焚燒廬舍’.

34)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1년 8월. ‘蒙兵入西北鄙, 候騎至廣州’.

35) 이세화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廣州牧條에 그 직함이 刺史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전직을 참고하면 廣州副使였던 것으로 판단된다(尹龍赫, 앞의 책, 252쪽, 1991).

은 광주 일대가 가지는 교통상 특징과 해당 지역 방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⁶⁾

A2·A3은 비록 이후 시기에 해당하지만, 몽골군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2에서 高州·和州 등 고려의 동북쪽 경계로 진입한 몽골군은 광주로 척후를 파견하고 있다. A3의 몽골병은 고려의 서북쪽 경계로 들어왔지만, 역시 광주에 척후를 보냈다. 몽골군은 척후의 운용을 굉장히 중요시했다.³⁷⁾ 그리고 그들은 고려의 어떤 방향에서 고려 경내에 진입하더라도 광주를 정탐하였다. 몽골군의 진격 노선에 있어서 광주 일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교통상의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撒禮塔 역시 해당 지역을 장악해 추후 진군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다. 다음을 통해 그 행적을 살펴본다.

B1) 고려 고종 때에 도읍을 강화로 옮겼는데, 元 황제가 노하여 군사를 보내 사실을 문책하였다. 元의 元帥 撒歹*이 御史雜端 薛愼을 군중에 잡아 두고 松京에 와서 강을 건너 남하하고자 하였다. 薛愼이 撒歹*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속된 말에 異國 大官으로 南江을 건너는 자는 불길하다 한다.”라고 하였다. 撒歹*은 듣지 않았다. 漢陽山城으로 가서 함락시키고, 그 다음 處仁城에 갔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元兵은 돌아와 송경에 다다르자 설신은 식견이 있다 이르며 강화에 들여보냈다.³⁸⁾

36) 전술한 것처럼 처인부곡도 물론 이러한 교통상의 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1>에서 보이듯 광주에서 용구현·처인부곡을 거치면 죽주를 지나 청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강제광 역시 이 루트를 ‘광주도 B길’이라 지칭하면서 처인성의 지리적 여건을 언급한 바 있다(강제광, 위의 글, 2018, 228~233쪽).

37) 『黑韃事略』 其行軍 ; Giovanni da Pian del Carpine, “Ystoria Mongalorum” ;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기행 :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까치, 2015, 106~107쪽. 이하 번역서만을 표기한다.

B2) 겨울 11월 몽골의 대군이 와서 수십 겹으로 포위했으며, 온갖 계책으로 공격하기를 수 개월이 되었다. 공은 밤낮으로 보수하여 수비하고, 상황에 따라 응변하면서도 예상 밖의 것을 내놓았고, 혹 사로잡고 죽인 것도 심히 많았다. 오랑캐가 불가능함을 알고 비로소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³⁹⁾

B1은 2차 전쟁과 처인성 진격 직전의 행보를 보여주는 사료 중 하나이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진입한 이후, 撒禮塔의 첫 번째 공략지는 한양산성이었다.⁴⁰⁾ 해당 전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 그 전개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 몽골군은 이를 攻取하였고, 한강을 도하하여 곧장 남하하였다.

다음으로 撒禮塔을 마주한 곳은 廣州城⁴¹⁾이었다. 하지만 廣州副

3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古跡 處仁城. ‘高麗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繫御史雜端薛慎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慎謂撒歹曰, 國諺有之異國大官, 渡南江者不吉. 撒歹不聽. 抵漢陽山城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慎有知識, 遣入江華.’

39) 『李世華墓誌銘』. ‘是夏, 國家因虜寇, 將遷都, 以廣州酒中道巨鎮, 朝論揀汰, 遣公出刺. 冬十一月, 蒙古大兵來, 圍數十重, 以百計攻之, 至數月. 公日夜繕守備, 隨機應變, 出其意表, 或俘殺甚衆. 虜知不可, 遂解圍去.’

40) 한양산성은 곧 三角山城, 中興(重興)山城이다(崔鐘奭, 「대몽항쟁·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 『震檀學報』 105, 2008 ; 『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신구문화사, 2014, 208~210쪽). 9,417척 규모에 해당하는 비교적 넓은 성곽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古跡 重興洞石城). 내·외의 2중성이며, 외성은 지금의 노적봉과 증취봉을 연결한 구간에 해당하고 내성은 중흥사 권역 초입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1711년(조선 숙종 37) 북한산성은 중흥산성의 古基에 수축되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성곽』,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4, 253~256쪽 ; 김성태, 「삼각산 중흥산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서울과 역사』 95, 2017).

41) 廣州城 戰鬪의 전장으로는 후대 남한산성이 되는 광주 日長城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尹龍赫, 1991, 앞의 책, 255쪽 ; 강제광, 2018, 「1232년 李世華의 廣州山城 전투 勝捷의 歷史의 意味」, 『民族文化研究』 78, 140쪽). 다만 전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료인 『李世華墓誌銘』에서는 모두 ‘廣州’를 주제로 기록되었는데, 해당 전투의 영향에 대해 ‘此城陷則餘可知已’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해당 성곽이

使 李世華의 활약으로 이 일대를 차례로 장악해나가려던 撒禮塔의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B2는 「李世華墓誌銘」 중 광주성 전투의 전황과 관련한 부분이다. 몽골이 성곽을 여러 겹 포위한 채 공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1차 전쟁기에 이미 나타난 바 있다.⁴²⁾ 또, 고려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다.⁴³⁾ 하지만 이세화는 상황에 따라 응변하고, 유사시 기지를 발휘해 몽골군의 의표를 찌르면서 그들을 수개월이나 붙잡아 두었다. 결국 撒禮塔은 광주성 점령을 포기하였다. 그렇게 남진시 ‘1차 거점지’가 될 수 있는 곳의 초입에서, 몽골군은 물적·인적·시간적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

광주성 공략 실패로 인해 몽골군은 목표를 수정해야만 했다. 이에 B1에서 확인되듯 처인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撒禮塔이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몽골군은 불의의 일격으로 인해 결국 廣州牧 일대 장악에 실패했으며, 元帥를 잃고 고려에서 철군하였다. 이러한 몽골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동기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때문에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석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다 해명될 부분이 없을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읍치랑 관련되었기에 나타난 표현이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李世華墓誌銘」에는 ‘淸州山城’이라는 표기가 나타나는 등 ‘山城’ 표기와 단순 ‘城’ 표기가 구분되고 있기도 하다. 광주 읍치와 관련한 성곽이 존재했다면, 字句상의 전장은 별도의 산성이 아니라 광주읍성을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한편, 고려시대 광주의 읍치는 하남시 교산동 일대로 여겨지고 있다(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해당 지역 발굴 과정에서 성곽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태종대 ‘山城’이 아닌 ‘廣州城’을 수축한 사례나(『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1월 丙戌, 廣州人 趙云佐와 관련한 기록에서 ‘城’과 관련한 지명이 나타나기도 해서(『高麗史』 권112, 列傳25 趙云佐),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광주성 전장의 위치 비정은 잠시 보류하고, 해당 전투의 전장표기를 일단 ‘광주산성’이 아니라 ‘광주성’으로 통일한다.

42)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金慶孫·崔椿命.

43) 『黑韃事略』 其軍器 ;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09·110쪽.

3. 몽골의 전술과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

처인성은 현재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마을 입구에 있는 해발 약 70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사다리꼴 모양이며, 둘레는 약 350m에 그친다.⁴⁴⁾ 그 여건은 要害處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또 軍倉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운용 시대에 관한 정보는 없다.⁴⁶⁾ 때문에 고려시대로 소급하여 신뢰할 수 있을지, 일단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시점 이전에도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⁴⁷⁾

또 하천이 인근에 있어 분명 서쪽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

44)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지표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 해안문화재연구원, 『용인 처인성Ⅱ—용인 처인성 정비사업 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해안문화재연구원, 2020.

45) 해발고도나 규모 등의 요소가 해당 성곽의 항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때, 처인성은 해당 시기 다른 입보용 성곽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악한 지표를 보인다(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險山大城의 入保用山城 出現」, 『先史와 古代』 40, 2014, 206~207쪽). 게다가 대개 입보용 성곽으로는 석축 성곽이 활용되었으나, 처인성은 판축식의 토축 성곽이라는 점에서도 일면 약점을 가지고 있다.

4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古跡 處仁城.

47)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처인성 부분의 자구가 ‘今盡頽廢 舊(古)有軍倉’ 혹은 ‘有軍倉 今盡頽廢’ 등의 형태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다른 편목에서는 이전에 군창이 운영되었던 성곽이지만 지리지 작성 시점에 폐성되었을 경우, 일관되게 ‘군창의 유무-성의 폐성’ 순서로 기재하고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忠淸道 韓山郡 城郭 乾至山城·권18, 忠淸道 定山縣 古跡 鷄鳳山城·권35, 全羅道 羅州牧 古跡 錦城山古城·권47, 江原道 淮陽都護府 古跡 南山城). 하지만 처인성의 경우 ‘今盡頽廢-有軍倉’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今盡頽廢’되기 이전에도 ‘有軍倉’이었던 상태인지를 문헌의 문구상으로도 보장받기 힘들다. 이에 더하여, 『東國輿地勝覽』보다 앞선 단계에 편찬된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해당 軍倉에 대한 기록이 없다. 『世宗實錄』 地理志는 비교적 군창의 소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서이기에, 더욱더 소급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龍仁縣).

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고려의 해도입보 전개에 타격을 준다면, 혹은 江都 압박의 효과를 가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굳이 城을 치지 않고 물길을 장악하여 통행을 차단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또 처인성이 항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채 국가적·조직적으로 운영된 거점이 아니었다면, 몽골군이 왜 처인부곡에 나타났는지는 분석될 필요가 있다.

몽골은 이로운 점을 보지 못하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⁴⁸⁾ 처인성 공격이 어떤 이로움으로 작용했을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들이 각지에서 전개했던 전술을 살펴보도록 한다.⁴⁹⁾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서술된 기록들을 참조할 때, 그들이 펼치는 다소 ‘특징적인’ 전략·전술은 몽골이 공략한 각지에서 포착되었다. 예컨대, 몽골이 火攻을 위해 사람의 기름을 사용한다는 점은 서방 세계의 입장에서도 인상 깊었던 듯 기록되고 있으며⁵⁰⁾ 고려에서도 역시 활용상이 나타난다.⁵¹⁾ 또 성을 공략할 때 땅굴을 파서 진입을 시도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음이 확인되는데,⁵²⁾ 고려에서는 물론⁵³⁾ 金을 공격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⁵⁴⁾ 즉, 지역적 요인에 따라 그 방식을 응용·변화시키는 부분이 있겠지만, 몽골인의 전투 양식은 보편적인 형태가 보

48) 『黑韃事略』. “其陣 …… 不見利不進”

49) 이 때 활용할 자료는 宋 彭大雅의 『黑韃事略』, 宋 孟珙의 『蒙鞞備錄』, 그리고 페르시아 Rashīd al-Dīn의 “Jāmi’ al-tawārīkh”와 Atā-Malek Juvayni의 “Ta’rīkh-i Jahān-gushā’i”, 또 선교사 Giovanni da Pian del Carpine의 “Ystoria Mongalorum” 등이다. 이들 사서는 모두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몽골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David Morgan, “The Mongols”, *New York : Polity Pr.*, 1986 ; 권용철 역, 『몽골족의 역사 : 몽골초원에서 중국, 중동,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Monograph, 2012, 33~64쪽 ; Timothy May, “The Mongol conquests in world history”, *London : Reaktion Books*, 2012 ; 권용철 역, 『칭기스의 교환 :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사계절, 2020, 13~23쪽).

50)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09쪽.

51)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52)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10·118쪽.

53)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54) 『金史』 권111, 列傳49 完顏訛可.

였던 셈이다.

몽골과 관련한 특징 중 다음의 사료를 주목하고자 한다.

- C) 무릇 大城을 공격하면 먼저 小郡을 쳐서 그 人民을 약탈하여 驅使로 공급한다. 이에 명을 내리기를 “매 1騎兵에 반드시 10인을 약탈하라.”라고 한다. 사람이 죽히 준비되면 매 사람마다 풀을 구하게 하며, 혹은 뿔갑·혹은 흙과 돌 약간을 모은다. 밤낮으로 재촉하며 늘어지는 자는 죽인다. 재촉하여 해자를 채워 막아 평평하게 하고 혹은 鵝車·洞車·砲車에 공급한다.⁵⁵⁾

C는 宋人이 기록한 몽골인의 전투 방식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몽골은 근본적 목표점인 大城⁵⁶⁾을 공략하기 위해, 주변 지역인 小郡을 쳐서 인적 자원을 약탈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노역을 시키고, 때로는 군인으로 충당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본래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은 영역적 요소보다 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⁵⁷⁾ 전투시에도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C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지역의 실제 전투에서 목격된다. 그 사례들을 일부 확인해보도록 한다.

55) 『蒙韃備錄』軍政. ‘凡攻大城, 先擊小郡, 掠其人民以供驅使. 乃下令曰, 每一騎兵, 必欲掠十人. 人足備, 則每名需草, 或柴薪, 或土石若干. 晝夜迫逐, 緩者殺之. 迫逐填塞壕塹立平, 或供鵝洞砲座等.’

56) 이 때의 ‘大城’은 비단 해당 지역의 읍격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몽골이 각 지역의 지방제도나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식상 ‘大城’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념은 大邑·공간적 규모가 큰 성곽·많은 軍民이 입보해 있는 성곽 등 다양한 요소에서 ‘大’의 성격을 가지는 성곽을 포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57) Б.Я.Владимирцов, “Общественные строй монголов”, *Russian :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34 ; 주채혁 譯, 『몽골 사회 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192쪽.

- D1) 오르라트를 비롯해 정복한 촌락과 마을들에서 지원병을 불러들여 5만 명에 이르렀으며, 2만 명의 몽골인들도 집결했다. 그 모두를 십호·백호로 나누고 타직인 십호마다 몽골인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곳에서) 3파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에서 걸어서 돌을 날라와 시르다리아에 던져 넣었다.⁵⁸⁾
- D2) 그들은 코젠트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군적에 편입시키고 오르라트·부하라·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병사를 징용했다. 이리하여 5만의 징용군과 2만의 몽골군이 이 지역에 집결했다. 10타직인을 1대를 구성했으며 몽골 장교가 배정되었다. 그들은 3파르상 거리에서 도보로 돌을 운반해야 했고,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이 돌을 강에 떨어트렸다.⁵⁹⁾
- D3) 성채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사마르칸트 시를 정복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는 사전 조치로 먼저 그 주변을 깨끗이 일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 오프라르나 다른 지방으로 보냈던 왕자들과 아미르들이 그런 곳들을 정복하고 돌아와 징발된 징용대와 함께 (사마르칸트에) 왔다.⁶⁰⁾

58) Rashīd al-Dīn, “Jāmi’ al-tawārikh”; 라시드 앳 딘 지움,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 딘의 집사 2 :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332쪽. 이하 번역서만을 표기한다.

59) Juvaynī ‘Alā’ al-Dīn ‘Aṭā Malik, “Ta’rikh-i Jahān-gushā’i”; Boyle, J. A 역,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Vol I,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92. ‘They therefore drove the young men of Khojend thither in a forced levy(hasbar) and also fetched reinforcement from Otrar, Bokhara, Samarqand and the other towns and villages, so that fifty thousand levies and twenty thousand Mongols were assembled in that place. These were all formed into detachments of ten of the Taziks there was set a Mongol officer. on foot they had to carry stones a distance of three parasangs, and the Mongols, on horseback, dropped these stones into the river.’ 이하 번역서만을 표기한다.

60) 라시드 앳 딘 지움,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03, 341쪽.

D4) 만약 한 지방이 다른 지방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타르인들이 공격하는 고장은 파멸될 것이고, 그들은 붙잡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최전선에 배치 시켜서 또 다른 고장과 전투를 치를 것입니다. ……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지방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의 견해로는 신께서 같은 편이 되어 싸워주기 전에는 어느 지방도 혼자 힘만으로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⁶¹⁾

D1과 D2는 같은 시점의 일을 각기 다른 필자가 기록한 것이다. 오르라트·코젠트 등을 정복한 몽골군은 그 곳에서 인적 자원을 취하여 군인으로 편성하였다. 일정 단위마다 몽골인을 두어 관리하게 했는데, C에 나타난 ‘1騎당 10인 약탈’과 관련된다. 즉, 몽골군은 각기 10인 정도를 편취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편제하는 방식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관리하고 있다. 노획된 포로들은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고, 軍籍에 편입되었던 만큼 전투에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시점은 다르지만, D3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투 수행 장면을 보여준다. 사마르칸트를 공략하기에 앞서서 주변 지역을 깨끗이 일소하겠다는 부분은 大城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小郡을 친다는 C의 언급과 부합한다. 또 그 결과 징용대를 구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D1·2 및 C의 포로 편취 방식과도 연결된다.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활용하였음은 지역을 막론하고 포착되었다.

D4는 Carpine가 몽골의 풍속을 관찰한 결과,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개인적 견해를 기록한 부분이다. 이 역시 포로를 붙잡고, 정복지민들을 다른 지역 공략에 활용하였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기에 각 고을 단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성을 가지며 도

61)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24쪽.

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D1~D4는 C에서 나타나는 인적 자원 약탈과 활용 방식이 실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몽골의 군대는 ‘한 군대 속에 다소의 몽골인이 있고, 많은 남은 부분은 모두 망국의 사람이다.’⁶²⁾라고 이를 정도였다.

몽골군은 고려와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포로를 활용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되었지만, 물길의 어려움을 피력해 몽골의 기수를 돌리게 했던 鄉戶 邊呂도 그 중 하나였다. 또 鐵州城을 공략하기 위해 瑞昌縣에서 잡은 郎將 文大를 앞세운 사례도 있었다.⁶³⁾ 특히 철주성은 1차 전쟁기 북계 ‘14大城’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⁶⁴⁾ 그렇기에 C와 같이 小郡에서 잡은 포로를 大城에서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비록 이후이기는 하지만, 길이 열렸을 때 돌아오는 포로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묘사나⁶⁵⁾ 한 해에 206,800명의 포로를 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⁶⁶⁾ 이를 고려하면 몽골군은 民庶까지 포괄하는 다수의 포로를 수집·활용했다고 보여진다. 일정 수 이상의 포로는 유사시 기동력을 저하시키고, 물자를 다수 소비하게 하는 요인이다. 분명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수를 운용한 것은 분명 고려에서도 몽골의 전투 수행에서 포로가 맡아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⁶⁷⁾ 이를 감안하여 처인성 및 그 전투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62) 『黑韃事略』. “其陣 …… 一軍中寧有多少韃人, 甚餘盡是亡國之人”

63) 『高麗史』 권121, 列傳34 忠義 文大.

64) 姜在光, 앞의 글, 2009a, 50·51쪽.

65)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2년 4월.

66)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1년.

67)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남자들을 도륙하는 모습도 나타난다(『高麗史節要』 권 17, 高宗 40년 8월). 하지만 이상의 검토를 고려할 때 필요한 포로의 수를 충족하면 공포감을 주기 위해 남은 민들을 학살하는(『蒙韃備錄』 軍政;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10·111쪽; Boyle, J. A 역, 앞의 책, 1997, p127·129·131) 행보였다고 보여진다.

- E1) 금년 12월 16일에는 水州 속읍인 처인부곡의 小城에서 (몽골군에) 맞서 싸웠는데, 적괴의 원수인 撒禮塔을 쏘아 맞춰 죽였고 사로잡은 포로 역시 많았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가 꺾여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군대를 돌려 돌아가는 듯 보였는데, 일시에 모여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혹은 앞서고 혹은 뒤지면서 동으로 가기도, 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⁶⁸⁾
- E2) 왕경 남쪽 처인성에 이르자 공격하였다. 撒禮塔火里赤*이 화살에 맞아 죽으니, 別將 鐵哥火里赤이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⁶⁹⁾
- E3) 金允侯는 고종 때 사람이다. 일찍이 승려가 되어 白峴院에 주재했다. 몽골군이 이르자 김윤후는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다. 몽골 원수 撒禮塔이 와서 성을 공격하자 김윤후가 쏘아 죽였다.⁷⁰⁾

E1~E3은 처인성 전투의 전황과 관련된 사료들이다. 처인성이 ‘小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大城으로 취급될 만한 지역들을 굳이 예시하며 그 규모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처인부곡은 일반 군현에 비해서도 작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⁷¹⁾ 때문에 E1처

68)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12월. ‘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自是, 褫氣不得安止, 似已回軍前去, 然不以一時鳩集而歸, 或先行, 或落後, 欲東欲北.’

69) 『元高麗紀事』 太宗 4년 8월. ‘至王京南處仁城, 攻擊. 撒里塔火里赤中流矢卒, 別將鐵哥火里赤領兵回.’

7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金允侯, 高宗時人. 嘗爲僧, 住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侯射殺之.’

71) 부곡제와 관련한 대체적인 연구성과 및 흐름은 다음의 논문 참조.

具山祐,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12, 1988 ; 이흥두, 「부곡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중세 부곡 연구』, 혜안, 2006.

한편, 위의 글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 부곡제 영역의 특성을 검토한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향·부곡 등이 인구나 영역적 측면에서 일

럼 고려 스스로도 처인성을 ‘小城’이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처인성은 전략적·정부 주도적으로 지속적 활용을 위해 軍民을 입보시켜 만든 거점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외부 발신 목적으로 고려가 작성한 E1·몽골측의 기록에 의거한 E2·고려 내부의 기록인 E3 모두에서 官軍·官人の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주요한 군수창고가 운영되었던 성곽이거나, 고려 정부에게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곳이라면 분명 방비를 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서 당시 군창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배정된 인원이 보이지 않음을 고려하면 처인성의 물자는 이미 다른 중심 거점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 이후에는 활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고려 정부가 ‘처인성의 방어처 운영’을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의아한 점이 많다.⁷²⁾ 그렇다면 처인성은 고려 정부의 전국적 입보 전략에서 유리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던 곳이라 파악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만약 몽골군이 요해처를 먼저 선점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처인성보다 더 눈길에 들 만한 곳은 바로 인근, 현재 용인시 일원에 위

반 군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가졌기에, 국가적으로 이들을 해당 지역에 긴박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막았다고 보았다(정요근, 「고려시대 鄕·部曲의 성격 재검토—下三道의 향·부곡 주요 밀집 분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24, 2016).

- 72) 전쟁기 고려 정부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입보 거점들을 형성·운영하고 있었다.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적 여건상 그 전부를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로, 당대보다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했을 조선 초에도 여러 성 가운데 어떤 곳을 ‘선택’하여 입보성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世宗實錄』 권42, 世宗 10년 12월 癸未). 때문에 고려 정부에게 부곡 영역에까지 국가적인 입보처를 마련하고 관리할 여력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군수 물자 획득이나 전략 거점 확보의 측면 모두에서 처인성 자체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꼭 중요한 요충지에서 승전을 거두어야만 해당 전투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군사적으로 ‘처인성’의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처인성 전투’는 충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치하는 寶蓋山城이었다. 보개산성은 높고 험하다[高險]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되는 공간이다.⁷³⁾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가 편찬되었던 조선 단종대까지도 활용되고 있었다.⁷⁴⁾ 보개산성은 전형적인 고려 중기의 축성 양식을 보이고 있다.⁷⁵⁾ 따라서 고려·몽골 전쟁기에 도 국가적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몽골이 어떠한 요해처를 차지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며 고려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할 생각이었다면, 처인성의 경우보다 인근의 보개산성을 점령하는 편이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B2 등에서 이러한 행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撒禮塔의 몽골군이 우선 수주 관내의 처인성을 공략하였기에, 水州를 지나 전라도 방면으로 향하고자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동대가 척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⁷⁶⁾ 이들의 목표는 충청-경상도였고, 처인성 공격은 그 준비 차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앞서 아직 함락되지 않은 광주성을 이후 재차 공격하려 했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중 그들의 의도가 어느 방향이었던 간에, 향후 몽골군은 廣州牧·忠州牧·淸州牧 등을 비롯해 大城이라 할만한 곳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大城으로의 진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광주성에서 이세화에게 저지당하며 수개월 동안 묶여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시점의 몽골은 많은 인적 자원을 소비한 상태였다. 포로를 전장에 적극 활용하는 몽골에게, 당시 인적 자원에

73)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龍仁縣.

74) 다만 『東國輿地勝覽』 단계에서는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0, 京畿 龍仁縣 古跡, 寶蓋山城), 兩書의 편찬 시기 사이 어느 시점에 폐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5) 車勇杰 外,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 地表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

76) 앞서 살펴본 A2·3에서도 고려 경내에 진입하면서부터 광주 일대까지 비교적 멀리 척후를 보냈다. 2차 고려·몽골 전쟁 당시의 별동대도 척후를 겸하여 경상도 깊숙이 진격하였을 수 있다. 물론, 해당 기간의 사료가 타시기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소략하므로(尹龍赫, 「고려시대 史料量의 시기별 對比 —高麗史節要를 중심으로—」, 『公州師大論文集』 26, 1986), 다른 방면으로의 파견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한 재수급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撒禮塔은 군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주변의 ‘小郡’들을 일거에 공략하여 다시금 포로의 수급을 시도했다고 생각된다. 물길과 같이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공간만을 장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굳이 작은 규모의 城들을 공략했던 이유는 民戶가 모여 있을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위치한 곳을 감안하면, 인근에 있던 처인성은 쉽게 여러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실제 몽골군이 이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E1을 통해 방증된다. 처인성이 유일한 목표였고 그렇기에 撒禮塔의 규합된 본대가 공격했다면, 그가 사망했을 시점에 전장에서 일시적으로 흩어져 물러났더라도 철군시에는 鐵哥의 지휘 아래 모여 퇴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몽골군은 각기 활동하였고 모여서 퇴각하지 않았다. 결국 몽골군은 처인성 전투 직전 이미 군소한 편제 형태로 활동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처인성은 당시 몽골군이 인적 자원을 노획하고자 분대를 나누어 공략한 여러 ‘小郡’ 중 하나였다. 여러 갈래의 군 중 撒禮塔의 ‘分隊’가 처인성으로 향했을 뿐, 本隊를 규합해 전면전을 치르려던 전장은 아니었다.

요컨대, 그들의 행동양식을 감안하면 몽골에게 처인성 진격은 ‘향후 大城 공략에 대비하기 위해 小郡을 쳐서 그 人民을 약탈하려는’ 여러 갈래 행보 중 하나가 아니었나 한다. 국가적 방비책의 비호를 받지 못했던 처인성의 상태는 몽골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욱 용이한 곳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E2·E3에서 보이듯 처인성의 射手들은 적의 元帥를 사살하였다⁷⁷⁾. 그리하여 역으로 몽

77) 전력상 열세에 놓였을 처인성에서 고려가 승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승군의 존재와 사수의 운용을 꼽은 연구가 있다(강재광, 위의 글, 2018, 247~250쪽). 어느 정도 체계의 승군 조직이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차치하더라도, 궁수의 효율적 운용으로 적장을 빠르게 제거했던 것이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撒禮塔을 사살한 인물에 대한 논의는 각주 5)·6)의 연구 참조.

골군이 와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의외의 장소에서 거둔 승전은, 결국 전쟁에서 커다란 분기를 만들어냈다. 이후 고려 정부는 어떤 기조에서 몽골에 대처하고 있는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4. 고려의 방비 보완 기조와 처인성 승전의 반향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에서 일단 철수한 몽골은 만주 일대로 기수를 돌렸다. 1233년 5월 速不台 등을 앞세워 金の 汴京을 함락시켰고,⁷⁸⁾ 9월 蒲鮮萬奴를 사로잡으면서⁷⁹⁾ 東眞을 멸망시켰다. 이듬해 金 哀宗이 스스로 목매어 자진하면서 금 역시 멸망하였다.⁸⁰⁾ 몽골이 재차 고려로 향한 것은 그 이후인 1235년이였다.

몽골이 다른 곳에 집중하는 약 3년간 고려는 재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골군이 더 이상 ‘小郡’들을 기반으로 진격할 수 없도록 보완된 방비 형태를 준비해야 했다. 軍民을 더욱 단속하지 않으면, 사로잡힌 이들은 곧 적의 役夫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3차 전쟁부터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차례로 확인된다. 이를 살피면서 어떠한 기조에서 보완되고 있는지 파악해본다.⁸¹⁾

1253년 윤7월, 몽골은 고려의 서북부 경내에 진입하였다.⁸²⁾ 그리고

78) 『金史』 권18, 本紀18 天興 2년 5월 ; 『元史』 권121, 列傳8 速不台.

79) 『元史』 권2, 本紀2 太宗 5년 9월.

80) 『金史』 권18, 本紀18 天興 3년 1월 己酉.

81) 이 때 검토대상은 고려 정부를 주체로 한 정책들로 한정한다. 전쟁기의 특성상 민이나 군사적 계선에 놓이지 않았던 주체들의 활약이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쟁 전부터 고려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82) 『高麗史』 권23, 高宗 22년 윤7월 丙子. 해당 사료에는 몽골이 침입해온 군현이 ‘安邊都護府’라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한 이가 西北面兵馬使이고, 이후 몽골군의 행보가 서해도 일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高麗史』 권23, 高宗 23년 8월 癸丑)을 고려할 때 ‘安北都護府’의 오키라고 생각된다.

일주일의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F) 前·後·左·右軍의 陣主와 知兵馬事로 하여금 강화 연안을 수비하게 하고, 廣州와 南京에 명하여 강화로 들어 오게 했다.⁸³⁾

南京은 廣州와 함께 ‘X자형’ 도로망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려 남부의 여러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용인시 일원에 해당하는 처인부곡·용구현을 비롯하여, 廣州牧 영역 일대는 이러한 특성상 몽골의 1차적 진군 목표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고려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역은 民戶의 피랍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입보는 면 단위로 퍼져있는 특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점 단위로 응축하는 것이다. 때문에 입보처는 평시 행정 구역의 영역보다 비좁다. 각 거점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그 수용 정도를 초과하는 民들은 고려 정부가 구상한 방어체제 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특히 F에서 언급된 남경과 광주는 도읍인 개경과 그리 멀지 않고, ‘大邑’끼리 연결해 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역이다.⁸⁴⁾ 과밀하게 입보처를 운영한다면 항전에도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입보책에서 이탈되는 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83) 『高麗史』 권23, 高宗 22년 윤7월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

84) 남경의 경우 인구를 추정한 연구가 있기에 참조된다. 고려의 인구를 350~500만으로 볼 때 개경의 인구는 30~50만명, 남경의 인구는 7~10만명으로 추산된다(김창현, 「고려 남경의 주민과 인구」,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이에 따르면 남경에는 고려 인구의 약 2%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개경의 인구가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광주목까지 합산해야 하므로, F에서 언급된 남경-광주는 인구 분포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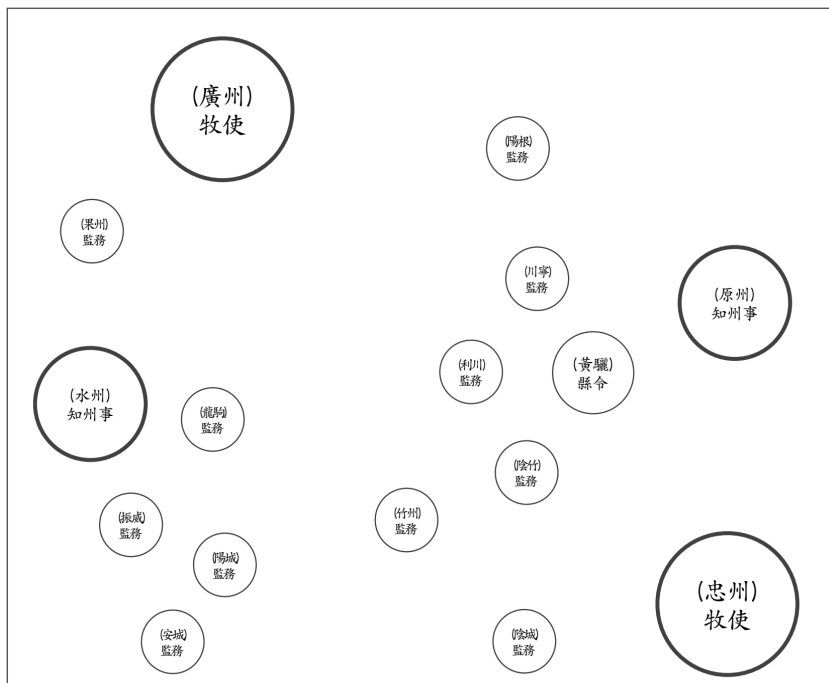
높다.⁸⁵⁾ 그리고 국가적 방책에 포함되지 못한 채 흩어진 이들은 몽골이 손쉽게 편취할 수 있는 자원이다. 결국, 고려 정부는 사전에 남경·광주의 民戶 일부를 강도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내륙 거점의 포화도를 줄이고, 결국 다수의 포로가 몽골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고 여겨진다.⁸⁶⁾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입보책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추가적으로 남아있었다. 고려의 지방 구조적·군사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음 <그림 2>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85) 해당 지역의 사례도, 내륙 입보처도 아니지만 竹島의 사례가 참고된다. 東北面兵馬使 愼執平은 동계 군현들을 이 곳에 입보시키고자 하였지만, 民들은 섬도 없고 좁은 섬에 과밀하게 입보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 결국 10중 2, 3만 입보하고 나머지는 逃散하였다고 한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

86) F가 이 일대의 민호를 완전히 강화로 들이려는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현지에 남아서 전투를 수행·보조할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광주목 영역 내에는 방어거점들이 형성·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모든 민호를 옮겼다기보다는, 미리 일부를 강도에 입보시켜 유망민의 수를 줄이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그림 2> 한반도 중부 일대 입보 운영 예시 1



<그림 2>는 廣州牧-忠州牧을 좌상부-우하부 귀퉁이에 두고 설정한 공간에서 주현 중심의 입보 상황을 가정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수령의 존재는 입보 운영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거점들 안에 각 단위 군현 및 해당 지역 수령이 확인되고, 또 추가적 거점을 운영할 때는 특정 급 이상의 수령이 없는 곳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⁸⁷⁾ 따라서 속현들은 지휘관이 존재하는 주변 주현으로 입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의 군현 규모는 일정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하위의 읍격을 가진 군현 수가 더 많았다. 즉,

87) 홍민호, 앞의 글, 2021, 141~150쪽.

당시 존재했던 주현을 중심으로 입보를 시행했을 경우, 수많은 ‘小郡’이 도처에 존재하게 된다. 향전 역량이 떨어지는 ‘小郡’들은 쉽게 함락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이들이 모두 소거되었을 때, 향전의 중심이 되는 거점, ‘大城’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지휘관의 수효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양계 지역은 본래 속현이 적어 수령도 다수 파견되어 있고,⁸⁸⁾ 추가로 군사 계통의 지휘관들이 다수 편제되어 있었다.⁸⁹⁾ 그러나 5도 지역은 사정이 달랐다. 주현군의 지휘체계는 주진군에 비해 매우 소략한 형태였다.⁹⁰⁾ 5도 내 수령들이 군권을 보유하기는 했지만⁹¹⁾ 속현이 많아 비교적

88) 양계 수령 역시 군 지휘권을 보유하였다(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57쪽).

89) 양계 주진군의 경우 세부 군현 단위까지 세세하게 장교층이 편성되어 있다(『高麗史』 권83, 志37 兵3 州縣軍). 그리고 본래 방수장군-방수중랑장-방수낭장-방수별장 등으로 이루어진 방수군의 별도 지휘계선도 운영되었다(李基白, 『高麗 州縣軍考』, 『歷史學報』 29, 1965;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14~216쪽; 趙仁成, 『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121~126쪽).

90) 주현군의 경우, 노역부대인 1품군을 제외하면 지휘체계가 극히 소략하거나 거의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139쪽; 최종석, 「고려전기 보승·정용군의 성격과 지방군 구성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58, 2011, 58·59쪽). 한편 향리들이 전투를 지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리들을 주현군 지휘권자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권영국, 「고려전기 州縣軍의 동원과 지휘」, 『史學研究』 64;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2001;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그러나 평시 주현군의 보승·정용군의 지휘권은 수령에게 있었다. 향리들이 무반직을 받고 주현군의 장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이미 주현군의 지휘체계 하에서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향리에게 처음부터 군권이 있었다면 1품군 장교직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주현군 장교직 임명 등 추가적인 절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조치가 확인된다. 때문에 향리는 그 자체로 군사지휘권의 보유자라 생각되지 않는다. 해당 군현의 役事 등 ‘役의 수취’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휘에 간여하는 외에 ‘향리로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유사시의 예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常存하는 지휘관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91) 李基白, 앞의 글, 1965; 앞의 책, 1968, 213쪽.

소수의 수령들이 넓은 범위의 입보를 책임져야 했다. 업무의 강도 측면에서 5도 지역의 수령이 과중도가 높았던 것이다. 그럴수록 자연히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민들이 유리되어 자체적으로 군집한 ‘小郡’은 5도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으로 각 거점 간의 유기성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D4에서 Carpine가 우려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다분했다.

이러한 추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36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防護別監이 파견되었다.⁹²⁾ 고려 정부가 입보책에 대한 축차적인 보완을 시행한 것이다. 방호별감은 방호사와 같은 계통으로, 본래 道 단위로 파견되었다가 고려·몽골 전쟁기에는 특정 군현 단위로 책임 구역을 좁혀서 분견되었다. 당시의 방호별감은 知州府郡事급 외관에 비견되는 관원이다. 監務 혹은 縣令 단위의 군현은 방호별감의 지휘아래 결집되기도 했다. 예컨대, 忠州牧의 天龍山城에는 黃驪縣이 흡수되었고,⁹³⁾ 東州의 東州山城에는 金城縣·金華縣이 입보하여 있었다.⁹⁴⁾ 知州府郡事 이상급의 수령과 방호별감의 지휘아래 거점을 통합합하면서 각 거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상호 거리가 줄어들어 유기성도 갖추게 되었다.⁹⁵⁾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2차 전쟁기 처인성과 같은 ‘小郡’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몽골에 대해 民戶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고려가 F의 조치로 民戶의 포로 피랍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던 한반도 중부 지역은, 방호별감이 집중 배치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파견지는 <표 1>과 같다.

92)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3년 6월 丁酉.

93)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0년 10월 甲寅.

94) 『高麗史』 권101, 列傳40 文漢卿 附 白敦明.

95) 홍민호, 앞의 글, 2021, 148·149쪽.

<표 1> 한반도 중부 일대 방호별감 배치 현황

노선	방호별감 배치성곽	전거
廣州牧-楊根縣-砥平縣-原州	楊根城 ⁹⁶⁾	『史』世 高宗 40년 10월 己酉
	原州山城 ⁹⁷⁾	『要』高宗 40년 10월
廣州牧-利川縣-忠州牧 ⁹⁸⁾	天龍山城 ⁹⁹⁾	『史』世 高宗 40년 10월 甲寅
	忠州山城 ¹⁰⁰⁾	『史』列 金允侯
廣州牧-竹州-淸州牧	竹州城 ¹⁰¹⁾	『史』列 朴犀 附 宋文胄

* 『史』는 『高麗史』, 世는 世家, 列은 列傳, 『要』는 『高麗史節要』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보완책은 처인성 전투를 겪은 이후인 3차 전쟁기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여, 4차 전쟁 이전 휴지기에는 일단의 정비가 마쳐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 중인 1243년(고종 30)에도 방호별감이 37명 규모로 각지에 파견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²⁾ 그리고 그 틀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것이다.¹⁰³⁾ 추가적 관원의 파견과 거점

96) 양근성은 그 명칭상 양근현의 치소와 관련한 성곽이 아닐까 한다. 한편 다소 억측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근성을 이후에 나타나는 함왕성(함공성)에 비정한 견해가 있다(수원대학교 박물관, 『양평 함왕성지—지표 및 시굴조사 보고서—』, 양평군, 1999, 20~25쪽).

97) 원주산성은 鶴原城에 비정된다(홍민호, 앞의 글, 2021, 155·156쪽).

98) 서술한 바와 같이 황려현은 천룡산성에 합입되어 있었는데, 廣州牧-黃驪縣-忠州牧의 길은 포기하고 廣州牧-利川縣-忠州牧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주 72)에서 일면 언급했듯, 고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어처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9) 천룡산성은 보련산 정상에 위치한 석축 산성으로, 고려·몽골 전쟁기 축조된 입보용 성곽이다(장준식 외, 『忠州 寶蓮山城 및 天龍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忠淸大學校 博物館, 2011).

100) 충주산성은 大林山城에 비정된다(최규성, 「제5차 여·몽전쟁과 충주산성의 위치 비정」, 『상명사학』 6, 1998; 최근영, 「忠州 大林山城 考」, 『중원문화연구』 4,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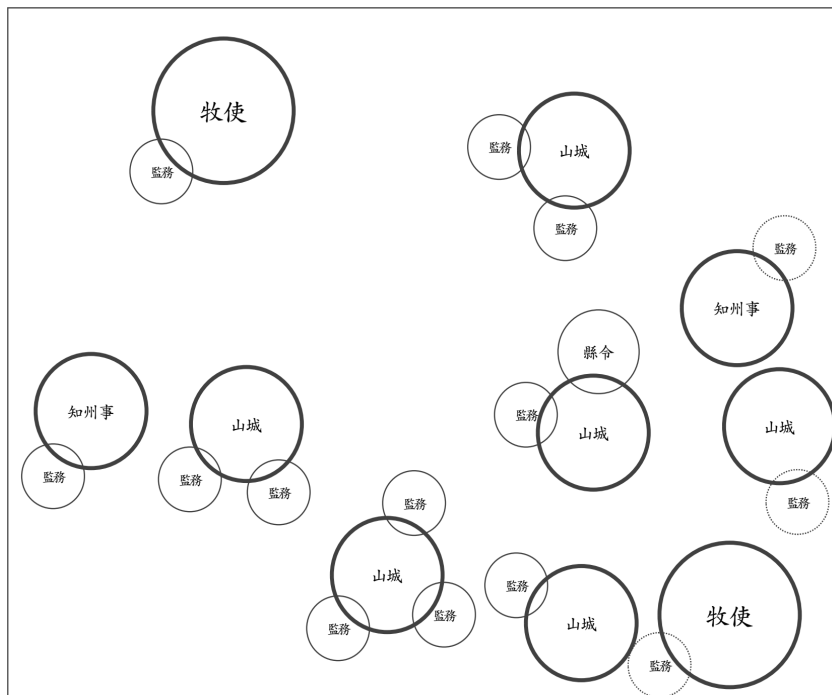
101) 죽주성은 퇴포식의 내성과 본성, 포곡식의 외성으로 이루어진 3중성의 형태였다(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170·175쪽).

102)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30년 2월.

103) 姜在光, 「對蒙抗爭期 崔氏政權의 山城入保策과 地方統治」, 『전쟁과 유물』 1, 2009b, 150쪽.

형성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그림 3>¹⁰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 한반도 중부 일대 입보 운영 예시 2



104) <그림 3>의 '山城'은 추가적인 지휘관 파견이 확인되는 입보 거점이다. <그림 2>의 유형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읍치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읍격을 표기하지 않고, 지휘관을 새로이 파견하여 규모를 키웠다면 일괄 '山城'으로 적었다. 그러나 앞선 장에서 언급한 寶蓋山城의 경우 이 시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외적으로 추가하였다(山城 중 가장 좌측). 점선으로 표기한 군현은 <지도 2>에 등장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해당 영역 내에는 망이산성·만정리토성·설봉산성·이성산성 등 여러 성곽도 존재하고 있지만, 출토 유물의 연대·축조특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쟁기에 국가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개별 성곽들에 대한 발굴보고서도 있지만, 지면 여건상 개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성과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위의 책, 1999 ; 차용걸 외, 『京畿道の 城廓』, 경기문화재단, 2003.

전술한 것처럼, 방호별감은 知州府郡事급 지휘관이었다. 縣令·監務 등 그보다 낮은 읍격의 군현들은 방호별감이 지휘하는 산성에 함께 입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시의 한정된 자원 하에서도, 고려 정부는 광주 남부 여러 방면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지점들에 각기 방호별감을 집중 배치하였다. 한반도 중부 지역 거점들에 대해 전통적인 ‘大城’만큼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中郡’ 정도로의 크기는 유지하도록 재구성해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역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형태였기에,¹⁰⁵⁾ 거점 간의 상호 유기성도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 정부는 단계적으로 몽골에 대해 인적 자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항전 역량을 갖추가는 기초에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⁶⁾

위 지역에 파견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고려 정부가 해당 지역 지휘관 인선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양근성에 주재했던 인물로는 尹椿이 확인된다. 그는 몽골군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¹⁰⁷⁾ 하지만 그가 1256년(고종 43) 다시 고려로 돌아왔을 때 몽골의 전술을 바탕으로 대책을 상언했던 점¹⁰⁸⁾ 고려하면, 군사적 식견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다. 돌아온 윤춘에게 고려는 오히려 親從將軍¹⁰⁹⁾을 超授하기도 했다. 다른 항복자들은 모두 처벌받았던 것을 고려하면¹¹⁰⁾, 전쟁기에 있어 고려 정부에게도 윤춘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죽주성에 파견된 바 있는 宋文胄는 1차 전쟁기 龜州에서 朴犀를

105) 홍민호, 앞의 글, 2021, 151~167쪽.

106)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면 물론 ‘小郡’들을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는 그 수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항전 역량을 갖춘 거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즉, 몽골의 군사력을 소모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의 남진을 늦출 수 있는 효과도 보았을 것이다.

107)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0월.

108)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3년 6월.

109) 親從將軍은 鷹揚軍의 정4품 將軍職이다(『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西班).

110)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1년 2월 甲辰·7월 戊午.

도왔다. 그 견문을 바탕으로 몽골군의 공격 방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¹¹¹⁾ 수성전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원주산성에는 鄭至麟이 파견되었던 바 있는데, 윤춘의 항복 권유를 물리치고 성의 수비를 더욱 굳건하게 하여 결국 몽골병이 포기하고 물러나도록 하였다.¹¹²⁾ 또 충주산성은 처인성의 승전을 지휘한 김윤후가 파견되었던 공간이다.¹¹³⁾ 고려 정부가 한반도 중부 방비에 주의를 기울여 보여주는 지점이라 여겨진다.¹¹⁴⁾ 전쟁기 한정된 자원에서라도 한반도 중부에 유능한 지휘관을 집중 배치하면서, 고려 정부는 몽골의 전투 방식에 대해 원활한 대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해당 영역의 중요성을 인정한 탓임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고려 정부는 南京·廣州의 民戶 일부를 강화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몽골의 1차적 목표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입보지의 포화를 막아 民이 방비책에서 유리될 가능성을 줄였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거점간 거리·거점의 크기를 조절하고, 처인성과 같은 ‘小郡’이 다수 散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중부의 경우 유능한 지휘관들을 파견하여 신경 쓴 흔적이 포착된다.

축차적이고 또 일관적이게 인적 자원의 보호가 수월해지도록 하는 보완 기조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물론 처인성 전투가 이러한 보완책의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승첩이 조정에 보고되면서 처인성과 같은 곳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있다는 점을 강제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입보 전개의 조밀화 과정

111)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附 宋文胄.

112)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0월.

113)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114) 한편, 당사자의 관품상 방호별감이라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미 광주성에서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세화는 3년을 더 광주성에 주재하다가 추후 淸州山城에 파견되고 있다(『李世華墓誌銘』).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 이후 어느 시점에는 등장할 수 있었겠지만, 처인성 전투는 그 방침들의 직접적인 시행에 있어 촉매제가 되기 충분한 사건이었다.

처인성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거점이 아니었다. 즉, 고려 정부의 인식에서는 그 전략적 이점이 높다고 보이지 않았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이 진격한 경로상에는 수많은 고을들이 산재해 있지만, 몽골이 寇掠한 공간들은 그 읍명이 전부 기록되지 않았다. 물론 직접 공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해당 軍民이 잘 입보하여 대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국가적 입장에서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기에 기술에서 누락된 지역도 분명 존재한다.

한 예로, 몽골과의 1차 전쟁에서 몽골군 一隊는 廣州를 지나 忠州·淸州로 나아갔다.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지나는 곳마다 殘滅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所過無不殘滅].¹¹⁵⁾ 몽골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편취한 뒤 남은 이들은 학살했다고 하는데,¹¹⁶⁾ 그 과정의 일환일 것이다. 1차 전쟁기는 전국적 입보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이므로, 고려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小郡’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강도로 전달된 상황은 史草가 되어 해당 사료의 기재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¹¹⁷⁾ 그 과정에서 결국 ‘廣州’·‘忠州’·‘淸州’ 등 大邑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군소한 지역들은 가려진 채 ‘所過’로만 전해졌다.¹¹⁸⁾ 특기할 만한 사안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115)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8년 12월 丁巳.

116) 『蒙韃備錄』 軍政;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10·111쪽; Boyle, J. A 역, 앞의 책, 1997, p127·129·131.

117) 『高麗史』는 史草를 바탕으로 사관이 재작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原史料를 그대로 둔 채 편집만 하는 형태로 편찬되었다(邊太燮, 「高麗史 編纂에 있어서의 客觀性的 問題」, 『震壇學報』 40, 1975;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3). 그렇기에 전황을 담고 있는 『高麗史』 내 기사들이 당시 조정에 보고된 것과 판이하게 다른 형태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진다.

118) 예컨대, 충주목 내에는 속현과 함께 多仁鐵所 외 12곳 가량의 향·소·부곡·장·처

고려의 주요 지역이나 거점을 바탕으로 전황이 기재되고 있으며, 작은 고을들은 누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⁹⁾

처인부곡 역시 자칫 감춰지기 쉬운 공간이었다. 즉, 해당 지역에서 무언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所過’가 ‘殘滅’되었다는 정도로 중앙에 보고되고, 지나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외의 큰 전과를 거두었다. 해당 지역에 시선이 닿게 되면서, 고려 정부에게는 처인성 전투 중심의 전황 이해가 강제되었다. 당시 시행하고 있었던 방어 방침의 맹점도 확인했을 것이다. 즉, 처인성과 같이 방어체계에서 벗어난 공간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은 몽골군에 의해 쉽게 포획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였다. 인적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나름의 보완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인성’ 자체는 비록 고려에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라도, ‘처인성 전투’가 가져온 여파는 상당했던 셈이다. 고려 내부의 상황적 요소와 고려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적되었던 의미 외에, 해당 전투 승전이 가졌던 또 다른 의미이고, 반향이다.

5. 맺음말

전쟁은 수행하는 주체가 있고, 행위는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몽골은 대외적 확장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그만큼

가 산재하고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忠淸道 忠州牧 古跡). 하지만 당시 전황 속에서 이들의 명칭은 드러나지 않는다.

119) 한편, 처인부곡 주변에도 磁器所와 陶器所가 1곳씩 있었다(『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龍仁縣). 하지만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행적이 확실하게 기록된 해당 시점에도 자기소와 도기소는 어찌 되었는지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역시 주요 전과를 중심으로 행적이 보고되고 기록된 예라 하겠다.

다양한 입장·시각에서 그들의 특징이 포착되었다. 몽골이 고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물론 고려 내부의 사정이나 조건도 고려해가면서 방침을 마련해 나갔겠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전투 방식도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1차 고려·몽골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고려는 達魯花赤을 축출하는 한편 江都로의 전격적인 천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몽골은 재차 撒禮塔을 元帥로 하여, 고려를 침공하였다. 撒禮塔은 배를 건조하여 江都로 향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廣州 일대를 점령하려 했다. 하지만 광주성에서 廣州副使 李世華에게 수 개월간 매여있게 되고, 撒禮塔軍은 많은 인적·시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몽골이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포로 등 인적 자원은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그렇기에 ‘大城’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小郡’을 공격하여, 軍民을 포로로 취하는 행적을 보였다. 처인성은 둘레 약 350m의 작은 성으로, 당시 고려 정부가 시행했던 전국적인 입보책에서 유리된 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다. 몽골이 향후 한반도 남부로 진격해 나감에 있어, 처인부곡은 인적 자원을 비교적 쉽게 편취할 수 있는 ‘小郡’이었다. 국가적 방비책의 비호를 받지 못했던 처인성의 상태는, 몽골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한 곳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撒禮塔은 전사하였고, 전쟁의 한 분기가 종결되었다.

金과 東眞을 멸한 몽골이 재차 고려를 공격해오자, 고려는 이전의 방어 방침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먼저, 몽골이 추후 진격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인 南京·廣州 일대의 民戶를 江都로 옮겼다. 그리고 知州府郡事급 관원인 防護別監을 각지에 파견하고 거점을 일정 규모로 키워 재편하면서, 처인성과 같은 ‘小郡’이 다수 散存하지 않도록 하였다. 유능한 지휘관을 한반도 중부 지역에 집중 파견하면서, 해당 지역에 보다 신경 쓰고 있는 모

습도 포착된다. 인적 자원의 보호를 수월하게 하는 기조에서 방침은 보완되고 있으며, 원활한 전개가 이루어졌을 때 유리된 民戶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처인성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거점이 아니었다. 고려 정부에게 있어 그 전략적 이점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던 공간인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저 몽골이 殘滅하고 지나간 지역으로만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극적인 勝捷을 거두면서, 처인성과 같이 방어체계에서 벗어난 공간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고려는 일정한 기조의 보완책을 보인다. ‘처인성’ 자체는 비록 고려에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라도, ‘처인성 전투’가 가져온 여파는 상당했다. 고려 내부의 상황적·고려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의미 외에, 처인성에서의 승전이 가졌던 또 다른 의의이고, 반향이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史』, 『元史』, 『元高麗紀事』, 『太宗實錄』,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黑韃事略』, 『蒙韃備錄』

Giovanni da Pian del Carpine, “Ystoria Mongalorum” ;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기행 :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까치, 2015.

<http://uci.or.kr//G901:A-0006570859@N2M>

Juvaynī ‘Alā’ al-Dīn ‘Aṭā Malik, “Ta’riḫ-i Jahān-gushā’i” ;
Boyle, J. A 역,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Vol I,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Rashīd al-Dīn, “Jāmi‘ al-tawāriḫ” ;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 딘의 집사 2 :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2. 단행본

권영국,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2019.

김창현,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http://uci.or.kr//G901:A-0006150813@N2M>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출판
부, 1999.

박원길,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 민속원, 2006.

<http://uci.or.kr//G901:A-0006123512@N2M>

-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3.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성곽』,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4.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편,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http://uci.or.kr/G901:A-0008436432@N2M>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
원문화연구소, 2002.
<http://uci.or.kr/G701:B-00113830793@N2M>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지표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
원문화연구소, 2002.
-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http://uci.or.kr/G901:A-0008356284@N2M>
- 尹龍赫,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 _____,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http://uci.or.kr/G901:A-0006355253@N2M>
-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http://uci.or.kr/G901:A-0008260828@N2M>
- 李基白 外,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http://uci.or.kr/G901:A-0008324259@N2M>
- 이인영, 『읍치와 성곽』, 민속원, 2010.
<http://uci.or.kr/G901:A-0006342294@N2M>
- 장준식 외, 『忠州 寶蓮山城 및 天龍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忠淸大學校
博物館, 2011.
-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
文, 1992.
- _____,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8.
<http://uci.or.kr/G901:A-0005399500@N2M>
- 周采赫, 『몽·려전쟁기의 살리타이와 흥복원』, 혜안, 2009.
- 車勇杰 外,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
<http://uci.or.kr/G901:A-0008567560@N2M>

- 차용걸 외, 『京畿道の 城廓』, 경기문화재단, 2003.
<http://uci.or.kr//G901:A-0006073733@N2M>
- 최종석, 『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신구문화사, 2014.
<http://uci.or.kr//G901:A-0006523437@N2M>
-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http://uci.or.kr//G901:A-0006460241@N2M>
- 혜안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처인성Ⅱ—용인 처인성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혜안문화재단연구원, 2020.
- 孫克寬, 『蒙古初期之軍略與金之崩潰』, 臺北：中央文物供應社, 1955.
- 羅旺紮布 外, 『蒙古族古代戰爭史』, 北京：民族出版社, 1992.
-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Cambridge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78.
<http://uci.or.kr//G901:A-0008665387@N2M>
- Timothy May, “The Mongol Art of War : Chinggis Khan and the Mongol military system”, Barnsley : Pen & Sword Military, 2007 ; 신우철 譯, 『몽골 병법』, 대성닷컴, 2009.
<http://uci.or.kr//G901:A-0006223854@N2M>
- _____, “The Mongol conquests in world history”, London : Reaktion Books, 2012 ; 권용철 역, 『칭기스의 교환 :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사계절, 2020.
- Б.Я.Владимирцов, “Общественные строй монголов”, Russian :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34 ; 주채혁 譯, 『몽골 사회 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http://uci.or.kr//G901:A-0008262418@N2M>

3. 일반논문

姜在光, 「蒙古의 제1차 침공과 被陷 北界 14大城의 抗戰」, 『韓國史研究』 146, 2009a.

<http://uci.or.kr//G901:A-0002709288@N2M>

姜在光, 「對蒙抗爭期 崔氏政權의 山城入保策과 地方統治」, 『전쟁과 유물』 1, 2009b.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2018.

<http://doi.org/10.35863/JKMH.53.7>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http://doi.org/10.35863/JKMH.63.5>

김성태, 「삼각산 중흥산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서울과 역사』 95, 2017.

<http://doi.org/10.22827/seoul.2017..95.005>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險山大城의 入保用山城 出現」, 『先史와 古代』 40, 2014.

<http://doi.org/10.23024/pah.2014..40.189>

_____, 「高麗 對蒙抗爭期 金允侯將軍의 3次例 勝戰의 意義」, 『白山學報』 114, 2019.

<http://doi.org/10.52557/tpsh.2019.114.121>

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http://doi.org/10.16959/jeachy..86.202108.13>

尹龍嫻,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 『韓國史研究』 29, 1980.

- 윤은숙, 「몽골제국시대 몽골군의 유목 전법」, 『몽골학』 28, 2010.
<http://doi.org/10.17292/kams.2010..28.001>
- 李在範, 「대몽항전의 성격에 대하여 : 계층별 항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0, 2004.
<http://uci.or.kr//G901:A-0002259679@N2M>
- 최규성, 「제5차 여·몽전쟁과 충주산성의 위치 비정」, 『상명사학』 6, 1998.
<http://uci.or.kr//G901:A-0001399251@N2M>
- 최근영, 「忠州 大林山城 考」, 『중원문화연구』 4, 2000.
<http://uci.or.kr//G901:A-0001437954@N2M>
- 최윤정, 「고려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http://uci.or.kr//G901:A-0002919076@N2M>
- 최종석, 「고려전기 보승·정용군의 성격과 지방군 구성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58, 2011.
<http://uci.or.kr//G901:A-0003463428@N2M>
-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研究』 193, 2021.
<http://doi.org/10.31791/JKH.2021.06.193.127>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ts Affects of the Battle of Cheoin Castle(處仁城) in the Period of Goryeo-Mongol War

Hong, Min-ho

It is said that there is a main performer in war, and action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The main performer of war, Mongol forces made use of human resources weigh with such as prisoners of war. Therefore, before attacking the big castle(大城), they attacked a small village(小郡) firstly and took the people as prisoner.

As Mongol advanced to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t a later time, Cheoin Bugok(處仁部曲) was a small village that could take human resources relatively easily. The Salietai(撒禮塔)'s army, which had already taken on human and time damage in Gwangju(廣州), had to take control of several small villages and re-supply human resources. However, Salietai died in Cheoin Castle(處仁城), and the war is over temporarily.

Cheoin Castle was not a national level operated military base at that time. If nothing remarkable happened, it could only remain as an area where Mongol army wiped out and passed by. However, the victory of Cheoin castle forced the Goryeo governmen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centered on the battle of Cheoin Castle.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could be as many people who were freed from the defense system.

After the Battle of Cheoin Castle, the Goryeo government is complementing its defense policy in the stance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human resources while guaranteeing the capabilities of resistance. It is the echo of the Battle of Cheoin Castle and another significance of the battle.

Keywords : Goryeo-Mongol war, Battle of Cheoin Castle(處仁城), small village(小郡), big castle(大城), prisoners, ipbo(入保)

